

#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쓰레기 수만 매립

광주시가 북구 일곡지구에 추진 중인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가 대규모 쓰레기증 발생으로 전면 중단된 가운데 해당 부지에 20여 년 전 수만의 생활쓰레기가 불법 매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와 광주 북구청 등에 일곡택지지구(147만㎡) 조성사업이 착수된지 10개월 만인 1994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삼각산 인근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단순 매립돼 있던 각종 생활쓰레기 41만2000t 가운데 14만t을 일곡지구 내 2개 근린공원에 분산 매립했다.

삼각동 인근 매립장은 99만㎡ 규모로 1983년부터 1990년 11월까지 광주지역 전체 쓰레기를 분리수거나 위생처리없이 단순 매립해 왔다.

시는 인근에 대단위 택지지구가 들어서는 점을 감안, 1994년 상반기 단순 매립된 쓰레기 전량을 북구 운영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입기로 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확인되자 사업시행자인 옛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자체 처리토록 방침을 틀었다.

운영동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달한 가운데 41만t을 한꺼번에 반입할 경우 쓰레기장 사용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수 밖에 없다는 행정적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대신 자연성쓰레기 등은 소각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1만3000t만 운영동으로 이적 처리했다.

방치된 쓰레기를 처분할 장소를 찾지 못한 토지공사는 택지지구 내에 매립하기도 하고, 일반 폐기물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했으나 주민반대를 이유로 같은 해 11월 취하 처리됐다. 토지공사는 결국 폐기물처리장 설치 승인이 받지 않은 채 택지지구 안에 2개의 근린공원에 불법 조성한 뒤 각각 9만㎡와 5만2000㎡의 쓰레기를 땅속에 매립했다.

연탄재 등 토분으로 선별된 양과 시설녹지안에 존치된 쓰레기를 뺀 나머지 5만t은 기존 매립장에 그대로 방치됐다.

시가 택지지구 내 불법 쓰레기 처리장 조성과 매립, 기존 쓰레기에 대한 부실처리를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시행사는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를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도 설계와 시공을 시행사 측 편익대로 진행하고 특히 근린공원 매립 시 선별된 부식토와 양질의 흙을 8대 2로 혼합해 매립토로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단순 매립해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북구청, 시행사 측은 지하

## 1994년 11월부터 2개 근린공원에 14만t 불법 매립 조사특위 '침출수, 유해 가스, 환경 오염' 등 지적 묵인·방조市, 24년 뒤 청소년시설 지으려다 제동

6.5~7m 높이로 부직포를 깔아 침출수를 최소화하고 가스포집 시설을 곳곳에 설치해 위생적으로 매립했다고 밝혔지만, 2016년 1월초 이뤄진 북구의회 현장특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다량의 침출수로 인한 악취와 차수막 부실 시공, 토양 오염, 침출수 무단 방류 인체 유해가스 발생 우려, 가스포집장 기능 미비 등이 차례로 지적됐다.

조사특위는 열흘 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택지지구 내 매립된 또

는 단순 매립된 쓰레기를 전량 운영동으로 반입 조치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광주시에는 사업중단 조치를, 시행사인 토지공사에는 침출수 무단방류 중단과 쓰레기반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후 조치는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수선한 분위기에 휘둘러 흐지부지됐고 근린공원 내 쓰레기산은 최근 해당 부지 중 한 곳에 청소년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쓰레기증이 발견되

면서 24년이 지난후에야 허술한 행정의 발목을 잡았다.

더욱이 해당 부지는 애초부터 공공시설물을 비롯해 지상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불법부지였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사특위로 활동했던 모 의원은 "당시 일곡지구 내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골벽적이었다"며 "근린공원 부지 80~90% 가량이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곳은 지반이 약해 건물을 짓기에는 부적절하고 가뜰이나 쓰레기가 지하에 산을 이루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시설을 짓는다는 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안심습지 전망대 일원에서 시방역 19일 오후 대구 동구 대림동 철새 도래지인 금호강 안심습지 일원에서 동구청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업체 와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드론과 방역차량을 이용해 방역하고 있다.

## '정신병원 입원 강요' 아동 학대 혐의 보육원장 검찰 송치

경찰이 원생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광주 YWCA 산하 사회복지법인 모 아동양육시설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로 모 보육원장 A씨와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22일 시설에 거주하던 B(17)양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B양을 지역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혐의다.

A씨는 올해 10월9일 B양 동의 없이 특정인에게 B양의 상담일지·진

단서 등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 규정을 자주 어겼다. 정신 질환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B양을 정신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료진 판단을 받은 직후 B양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뒤 다른 원생들 앞에서 읽으라고 강요하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시설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장의 지시로 B양을 병원에 데려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또 다른 학대 의혹을 받았던 원생 7명은 실제 치료가 필요해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밟았거나 A씨가 부임하기 전 입원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밤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아 2명을 손가락으로 때리고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이 시설 생활지도원 2명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YWCA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은 신체·정신·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가 없는 아동(0~18세 여자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1952년 7월 설립됐다.

조인호 기자

## 광주 2순환도 주행 트럭서 장어 쏟아져

광주의 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던 화물차량에서 장어 수백여 마리가 도로 위로 떨어져 30여분 동안교통이 정체됐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1분께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 덕흥대교 인근 유덕C 방면 도로를 달리던 A(32)씨가 몰던 1t 트럭에서 장어를 담은 봉지들이 잇따라 떨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관리회사는 도로 1·2차선의 통행을 30여분 동안 통제된 뒤 도로에 쏟아진 장어 300여 마리를 수거했다.

다행히 수거 과정에서 2차 사고 등은 없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적재할 덮개가 열린 사실을 모르고 주행하다 일어난 일로 보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현장에 되돌아왔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적재물 추락방지의무 위반 혐의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했다.

## 남해고속도로 달리던 LPG 탱크로리서 불

19일 오전 8시56분께 강진군 병영면 남해고속도로 영암방면 강진 4터널 내 도로에서 A(51)씨가 몰던 20급 LPG 탱크 차량 뒷바퀴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가스폭발이나 누출 등 큰 피해는 없었다.

운전자 A씨는 불이 나자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차량용 소화기 3대를 이용, 초기 진화에 나섰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뒷바퀴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상가서 훔친 물건 판매한 3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심야시간대 문을 닫은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 판매한 혐의(상습절도)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47분께 광주 북구 한 꽃 가게 앞에 놓인 4만 8000원 상당의 화분 40여개를 차량에 싣고 달아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영업을 마친 상가 7곳에서 8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 상당의 세제·커피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훔친 생활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가게 안에 놓을 화분을 구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해 누님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빨래방에 놓고 간 지갑 훔쳐 달아난 3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셀프빨래방에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에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셀프빨래방에서 B(27·여)씨의 현금 2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 B씨가 지갑을 탁자 위에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셀프빨래방 앞을 지나가다 B씨의 명품지갑이 눈에 띄었다. 지갑에 든 현금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신고한 이웃 찾아가 행패·폭행한 60대 구속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을 찾아가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둔기로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9일 A(69)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B씨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욕 그만하고 내려가라고 말한 B씨의 오른쪽 무릎을 철제 지팡이로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주민인 B씨가 이전에 공원을 란죄로 경찰에 신고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했다고 전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